



50일 맞은 총파업 대오에 새 물결

장강(長江)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며 나아간다. 현재 연합뉴스 파업 상황이 그렇다.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한 파업 투쟁이 시작된 지 50일째인 3일.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나홀로 투쟁’을 벌였던 특파원 조합원들의 자리를 수습을 갖 마친 새내기 조합원과 파업 복귀·신참자들이 메웠다.

2011년에 입사한 새내기 조합원들은 그동안 수습 신분이기에 선배들이 없는 기자실을 지키며 고된 강도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파업에 동참하며 발표한 글에서 밝힌 것처럼 새내기들은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기계처럼’ 일해야 했고, ‘누락된 기사를 메워보려고 타사가 생산한 기사를 베끼기도’ 했다.

이들이 분연히 파업에 나서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연임 반대, 공정 보도란 구호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공감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또 수습들이 파업이나 공정보도에 대해 뭘 아느냐는 무시도 받았다.

그럼에도 새내기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연합뉴스의 23년 만의 파업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새내기들은 성명서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신념의 깊이에 차이가 있지만, 33기 모두는 회사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고 우리의 파업 참여만이 그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들은 “누구의 지시도 강압도 아닌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에 33기의 파업 투쟁은 굳건할 것”이라며 선배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처음으로 사장실 앞 시위에 참여한 김수진 조합원은 “선배들을 믿고

이 자리에 왔다. 저희들을 가르치고, 혼내고, 보듬어 준 선배들이 23년 만에 일터를 박차고 나간 데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그것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며 “막내이지만 조합동지로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업무에 잠시 복귀했던 다국어뉴스부 조합원 9명이 다시 투쟁 대오에 동참하며 파업에 힘을 실었다.

다국어뉴스부 조합원 14명은 3월 중순께 파업에 동참했다가 신분의 불안정성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일터로 돌아갔었다. 하지만 파업이 50일 넘어가는 상황에서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재참여하기로 결정 내린 것.

다국어뉴스부의 한 조합원은 “지금 우리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한

두명이라도 더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 힘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재참여 배경을 전했다.

연합인포맥스에 파견된 광세연 조합원은 노조에 새로 가입하면서 파업에 동참했다.

광 조합원은 “연합뉴스 구성원으로 서 응당 했어야 할 일인데, 늦어서 미안하다. 모두 지치고 힘들 텐데 열심히 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광 조합원은 “사정이 어떻든 스스로 비겁했다는 생각에 그동안 마음이 불편했다”며 “행동으로 못 옮기는 선배들이 투쟁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노조가 흔들리지 말고 가보자”고 덧붙였다.

사측의 압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첫날부터 50일간 파업에 동참했던 해외특파원들에게 조합원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연대의 박수를 보냈다.

새내기 조합원에게 보내는 편지

■ 이동철 조합원

‘수습 꼬리표’를 떼 33기 후배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짧지 않았던 6개월간의 고된 훈련 기간을 잘 견뎌내고 정식기자로 첫걸음을 막 뚫었군요.

입사 동기 33명 중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지만 서른두명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기자’로 출발하는 후배들에게 축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병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아직 남아 있기에 선배로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후배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기간통신사 파업 기간 선배들의 빈 자리를 땀질해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인터넷을 보고 기사를 베껴 쓰는 자괴감을 느껴야 했고 한편으로는 주말과 야근 연속 근무로 힘들었을 겁니다.

선배들은 파업 핑계로 막내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심한 마음고생을 안으로만 삭여야 했던 후배들을 떠올리면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후배들은 마침내 수습 딱지를 떼자마자 ‘파업 동참’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출발이 파업이라는 현실이 답답할 겁니다. 그런 악조건을 딛고 용기있는 선택을 해준 것에는 고마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우리선배들이나설차례입니다. 단단히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괴로워하고 방황했던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겠습니다. 후배들과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론 술자리에 둘러앉아 마음에 담아뒀던 괴로움과 궁금증을 쏟아내도 됩니다.

파업대열에 합류한 우리 후배들은 자긍심을 느껴도 될 듯합니다. 연합뉴스파업은 공영 언론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아픈 과거를 참회하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진통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는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나려는 몸부림입니다. 공정보도라는 대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그런 싸움에 나선 선배들은 후배들의 동참이 천군만마처럼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연합뉴스 일원으로 신바람나게 일할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역사의 훈장을 이미 가슴에 받은 후배들의 힘찬 출발을 거듭 축하합니다.



■ 임화섭 조합원

먼저, 지긋지긋했을 수습신세를 벗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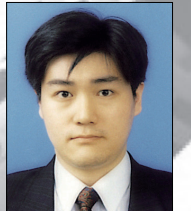
예년의 경우 연합뉴스 수습사원 시절의 마지막 한두달은 인생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입학하기 전 한두달, 그리고 입사가 확정되고 나서 연합뉴스에 들어올 때까지 지냈던 시절처럼 말이죠. 사건팀 수습을 끝내고서는 부서 순회체험을 하거나 영상교육을 받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몇 달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된 시기를 보냈고, 부서에 배치되고 나면 계속 힘들게 일을 하게 될 터이니 몸과 마음을 추스를 기회를 가지도록 하려는 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선배라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한 다 그렇게 수습 말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습사원 신분으로 부서에 배치돼 현업에 투입됐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비인간적 노동 착취에 시달렸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고, 또 열심히 일하고 배울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지나간 수습 시절의 나쁜 기억은 훌훌 털어 버리고 서로를 아꼈던 좋은 추억만 때때로 곱씹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시간이 많으실 테니, 함께하는 파업투쟁 일정이 없는 시간에는 그간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판단과 의지와 결단에 따라 조합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연합뉴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힘겨운 투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힘든 길이요,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길입니다. 길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아는 점쟁이도 없습니다. 이 길이 끝날 때까지 서로를 의지하면서 어둠을 헤쳐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투쟁 대오에 합류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더라도 태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먼동이 터서 어둠이 사그라지고 눈 부신 햇살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파업투쟁은 끝이 보일수록 처음처럼”

조합원 전체회의서 ‘초심’ 강조

연합뉴스 노조는 3일 오전 본사 8층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파업 50일째를 맞는 소감을 나눴다.

전날 수습교육을 마친 기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조합원들은 파업 투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각자 힘들더라도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손을 놓은 첫날의 뜨거움을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병설 위원장은 “박정찬 사장이 나갈 때까지 싸울 수 있는 명분과 당위가 충분하다. 하지만 파업 상황을 어떻게 풀지 현실적인 고민도 병행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정보도를 지키고 회사를 살리려는 처음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 연합뉴스 역사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순수한 각오를 다지자”고 강조했다.

권혁창 조합원도 “회사 측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처음의 꿈과 기대를 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조합원은 “우리는 승리에 관한 확신을 갖고 있다. 파업을 통해 뭔가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입 기자들은 새내기답게 활발한 모습을 보여 회의 분위기를 띄웠다.

오예진 조합원은 “선배들이 없는 동안 화장실에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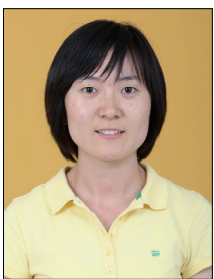
일했다. 선배들을 믿고 열심히 동참하겠다. 일정을 다 비워놔오니 자주 불러달라”고 말했다.

박정준 조합원은 “먼저 일손을 놓은 선배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본다. 노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인포맥스에 파견됐다가 이달 들어 노조에 새로 가입하고 파업에 함께한 객세연 조합원은 “지난 50일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늦게 합류한 만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파업투쟁 숨은 일꾼

⑤ ‘콘서트 프로듀서’ 송진원 조합원



송진원(사회부) 조합원은 연합뉴스 노조가 파업투쟁 들어 가장 큰 행사를 치르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많은 땀을 흘렸던 숨은 주인공이다.

송 조합원은 지난달 18일 본사 앞 한빛공원에서 열린 ‘파업

한 달 콘서트’의 실무단장을 맡아 공연 준비부터 당일 행사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감독했다.

물론 출연가수 섭외를 도운 이은정(문화부)·박지호(사진부) 조합원을 비롯해 ‘춘사마 차력단’과 ‘곱창단’ 등 많은 조합원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전체 콘서트 프로그램으로 묶어낸 것은 프로듀서 역할을 한 송 조합원의 공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의 전체 순서와 사회자들이 진행할 대본의 일개도 송 조합원과 실무단원들의 머리에서 나왔다.

공연장에 좌석을 배치하거나 출연자들의 대기실 역할을 하는 천막을 치는 등 이날 화려한 무대의 곳곳에도 송 조합원의 손길이 배어 있었다.

송 조합원은 스크린 역할을 해 준 대형 광목 천을 구하러 직접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공연을 앞두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포스터를 붙이

고 이를 언론노조 각 지부 등 유관단체에 보내는 홍보 업무도 송 조합원과 실무단원들이 책임졌다.

송진원 조합원은 “명동 길바닥에 포스터를 붙이다가 항의하는 노점상 분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고 이를 사회자들에게 전달하며 뛰어다니다 보니 정작 공연은 무대 뒤에서 지켜봐야 했다.

송 조합원은 노조가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투쟁’을 시작하던 때부터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든든하게 힘을 보탠 일꾼이기도 했다.

박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소리 높여 “떠나달라”고 외쳤던 송 조합원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일깨우곤 한다. 또 파업 바자 등 주변 사람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노조의 행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조력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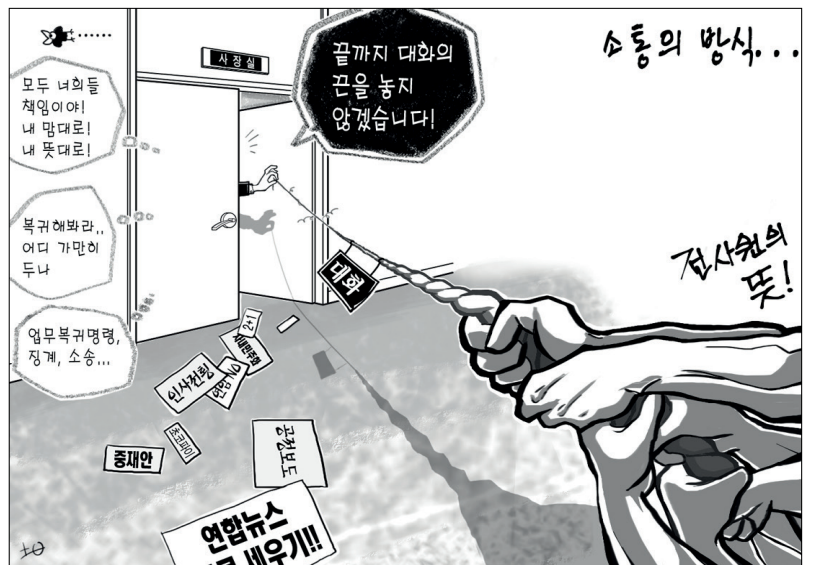
송 조합원은 “박 사장 때문에 별

일을 다 해본다”면서 “실무단원이었던 임형섭, 안홍석, 김은정, 배영경 조합원의 도움이 컸다.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웃었다.

콘서트를 준비하는 동안 ‘고작 한 달 했다고 공연이라니, 두 달째에도 또 할 거냐’라는 댓글에 상처를 받았다는 송 조합원은 “두 달째까지 가지 않도록 빨리 투쟁이 승리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보만평

김도일



☞ 1면에 이어

■ 조민정 조합원

먼저 50일 가까이 출입처에서 고군분투한 후배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 수습 땀 흘리기만 했고 부서배치 이후엔 큰 짐을 지우고 간 선배들인데도 믿고 따라줘서 고맙습니다. 각자 많은 고민이 있었을텐데 용기를 내 파업에 동참해줘 많은 힘이 됩니다. 불공정보도 과정을 직접 겪지는 않았기에 고민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당장의 편안함보다 험난할지도 모르는 파업을 택한 것은 공정보도의 중요성, 필요성을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멈춰 서게 만들어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수습 딱지’를 떼기 전에 파업을 마쳤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사령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펜을 내려놓는 상황이 돼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 선생도, 교과서도 없이 기사를 쓰고, 기자 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서배치를 받은 직후를 떠올려보면, 뭘 모르든지도 모르고 좌충우돌하면서도 선배들의 조언과 은근한 배려로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많은 일을 홀로 겪어야 했기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들을 보면서 기사뿐 아니라 기자로서의 자세,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배웠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여러 후배들이 ‘외로웠다’

라고 말하는것을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파업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동안 못해준 것까지 모두 갚겠습니다.

경찰 수습 시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욕먹으면서도 ‘마와리 끝나는 날’을 손꼽아가며 버텼을 것이지만, 이 파업은 끝날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날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자가 되기로 했을 때, 고민 끝에 파업참여를 결심했을 때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기사에 치여 잘 보지 못했던 동기들도 함께 있고, 이제 여러분을 건드리면 사장실에 ‘똥싸준다’는 선배도 있습니다. 함께 잘 싸우고 당당하게 돌아갑시다. 투쟁!

